

10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금년 무더위에서는 닭고기가 활개를 친후 기후가 서늘해짐에 따라 계란이 손님 자리를 차지하는 기후에 의해 양계산물의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느낌을 주어 안타깝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무더위가 사라지면서 제빵·제과류의 소비가 두드러져 수요증가로 가격이 큰폭으로 올랐다.

추석 이후 약세권 형성이 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추석후 높은 계란시세가 보험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 향후 호황의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한다.

특히 생산자의 의식구조가 무리한 입식보다는 적정수수를 유지하겠다는 자세가 시준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값이 바닥세를 형성하는 예년에 보기도문 현상이 금년도 채란업계의 큰 특징중의 하나다.

□8월의 산란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초생추사료는 3,899%로 7월에 비해 8월은 증가하는 것이 예년의 추세였으나 금년은 7월대비 8월이 7% 감소하였고 87년에 비해 13% 감소, 88년에 비해 45% 증가추세를

초순 보험세 유지, 중순 이후 서서히 하락세 예상

보여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내년도 계란값도 기대해 봄직한 현상인것 같다.

산란사료는 113,498%으로 87,88년에 비해 6%, 3%씩 각각 감소 추세를 보여 향후 신계의 수수 증가와 노계물량이 다소 많아져 계란생산의 증가는 예상되지만 급격한 증가는 어렵기 때문에 계란값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의 계란값은 약보험세 속에서도 호황은 지속될것 같다.

작년도 입식계군이 아직까지 계란값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작년도 입식수수의 감소와 금년 신계의 생산이 당분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초순은 연휴로 인한 소비신장이 예상되므로 보험세가 지속되다가 중순 이후 꾸준한 생산량 증가와 고난가로 인해 약보험세를 보일것 같다.

앞으로 우리 생산자들은 추석 특수로 인해 올랐던 계란값이 추석 이후 큰폭의 하락세가 예견되었으나 금년은 이번아닌 이번이 발생하여 보험세가 유지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금년초 신계의 입식이 많았던 점을 인식하여 환우를 시키든지 고주령의 닭을 계속 보유하여 무리한 생산계획을 피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우량중추분양
봉래농장

(02)511-0038, (0417)63-8402

01-4870

표 1. 산란용 P.S 입식현황

(단위 : 천수)

년도별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고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실제입추수수 (수입계포함)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89	45.3	31.8	28.7	68.6	49.4	25.4	25.8	17.0	21.5	16.5	27.8	50.8	408.6	89년국내P.S 생산계획량

그림 1. 대란고시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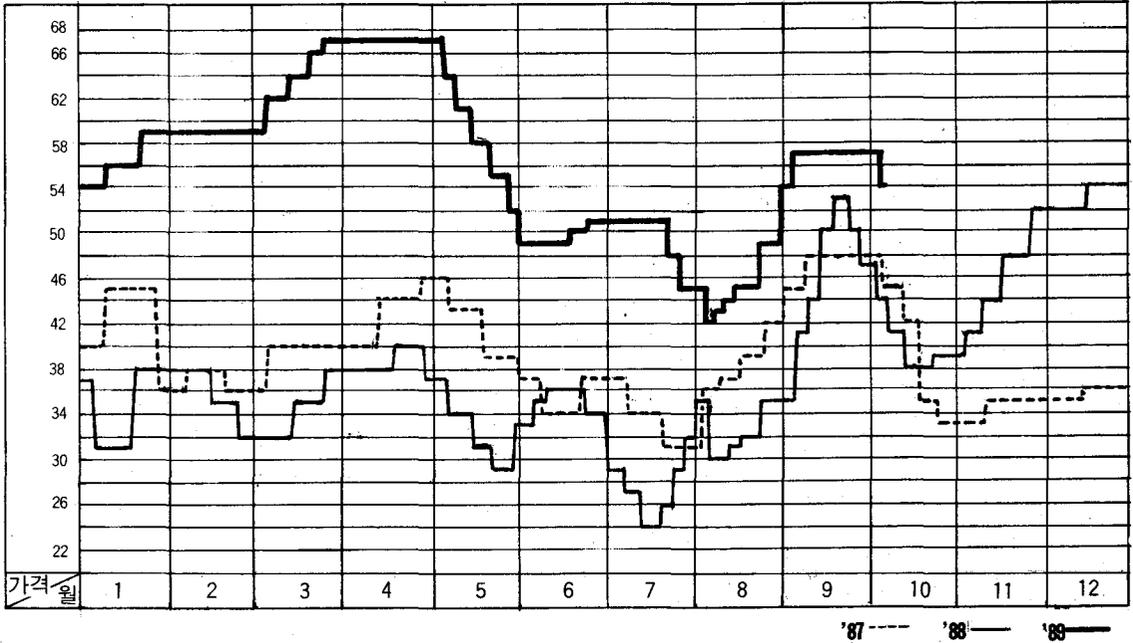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